

The Effects of Individual Factors, Family Factors, and School Factors on the Adolescents' Happiness

La, JongMin (Kookmin University, Professor)

Kim, Soyoung¹⁾ (Korea National Sport University, Professor)

< ABSTRACT >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individual factors (gender, academic achievement, self-concept, sleeping time, presence or absence of someone who shares worries, life satisfaction, and judgment about one's health), family factors (father's education level, mother's education level, and economic status), and school factors (perception of school life and satisfaction of school life) on the adolescents' happiness. Descriptive statistics, correlation,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were used. Hierarchical regression were put into the model, individual, family, and school factors. This study used the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s 'A study on the human rights of children and adolescents' in 2019 (middle, and high school). The number of middle school participants was 2,054, and the number of high school participants was 2,706. The results obtained from the analyses were as follows. First, academic achievement, self-concept, life satisfaction, judgement about one's health, and school satisfaction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in both middle and high school. Second, for middle school students the father's education level and perception of school life were significant. For high school, sleeping time, and the presence or absence of someone who shares worries were additionally significant. Third, according to the results of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adolescents' happiness was mostly explained by individual characteristics. School factors resulted in more happiness than family factors. Finally, the significance and limitations of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discussed.

Key Words : Adolescents' happiness, individual factors, family factors, school factors, hierarchical regression

1) Corresponding Author: Kim, Soyoung, Professor, Korea National Sport University, 1239 Yangjae-Daero, Songpa-Gu, Seoul, Korea, 05541 / E-mail: ksy041@hanmail.net

개인요인, 가정요인, 학교요인이 청소년의 행복에 미치는 영향

나종민 (국민대학교, 교수)

김소영¹⁾ (한국체육대학교, 교수)

< 요약 >

본 연구는 청소년의 행복에 개인요인(성별, 자아개념, 수면시간, 고민을 나눌 사람 유무, 학교성적, 삶의 만족도, 건강에 대한 인식), 가정요인(부학력, 모학력, 경제수준), 학교요인(학교생활에 대한 인식과 학교생활 만족도)이 미치는 영향을 탐색하기 위해 기술통계, 상관분석, 위계적 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위계적 회귀분석에서 1단계 모델은 개인요인을 독립변인으로 투입하였고, 2단계는 가정요인을 추가하였고, 3단계는 학교요인을 추가 투입하였다. 분석에 활용된 자료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주관한 2019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중·고등학생용) 응답자료였고, 이 중 결측치를 제외한 중학생 2,054명, 고등학생 2,706명만 연구를 위한 분석에 포함하였다.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중학생과 고등학생 결과에서 1단계 개인요인 중 건강에 대한 인식, 학교성적, 자아개념, 삶의 만족도, 3단계 학교요인 중 학교생활 만족도가 공통적으로 통계적인 유의성을 보였다. 이 외에도 중학생의 경우 가정요인의 부학력, 학교요인 중 학교생활에 대한 인식, 고등학생의 경우 개인요인 중 수면시간과 주변에 도움 사람 유무 변인이 추가적으로 유의하였다. 둘째,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에 따르면 1단계 개인요인의 행복에 대한 설명력이 가장 컸다. 또한, 중학교, 고등학교 결과에서 모두 2단계 가정요인에 의해 추가된 설명량 보다는 3단계 학교요인의 추가된 설명량의 크기가 더 컸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결과의 의의와 제한점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주요어 : 청소년 행복, 학교요인, 가정요인, 개인요인, 위계적 회귀분석

1) 교신저자: 김소영, 교수, (05541) 서울시 송파구 양재대로 1239, 한국체육대학교 / E-mail: ksy041@hanmail.net
논문투고: 2022. 11. 8 / 심사일자: 2022. 11. 8 / 게재확정일자: 2022. 11. 14

I. 서론

한국 어린이·청소년 행복지수 국제비교 연구(Yeom & Seong, 2021)는 2021년 어린이·청소년 주관적 행복지수는 OECD 국가 중 최하위(22위)라고 보고하였다. 세부지표(주관적 건강, 학교생활 만족 정도, 삶의 만족 정도, 부정적 생각: 소속감, 주변상황에 적응, 외로움) 중에서 주관적 건강과 삶의 만족은 OECD 국가 중 최하위(22위), 외로움은 21위로 매우 낮게 나타났다. 또한, 한국 청소년의 주관적 행복감은 대학생, 장년, 노년 등 다른 세대에 비해서도 낮은 수준으로 보고된다(Han et al., 2012).

청소년기 행복은 현재 상태뿐만 아니라 미래의 발달과 관련이 높은 중요한 요인이다. 청소년기에 많은 행복을 경험하는 개인은 청소년기에 친사회적 성향을 보이며 성인기에도 친사회적 가치관을 보인다(Shin et al., 2013). 또한, 청소년기의 행복감은 긍정적인 사회관계 형성, 성공과 학업 성취 등에도 영향을 미친다. 주관적 행복감이 극도로 낮은 청소년은 그렇지 않은 청소년에 비해 학업중단, 가출, 비행, 범죄, 자살의 가능성이 높다(Kammerman et al., 2010, as cited in Suh & Jung, 2014). 또한 행복이 낮은 청소년은 우울과 무기력, 음주 등 행동을 보인다(Ahn, 2009).

행복에 대한 정의는 크게 쾌락주의적(hedonic), 자기실현적(edudaimonic) 관점으로 구분된다. 쾌락주의적 관점에서 행복은 자신의 삶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긍정적 정서 경험을 많이 하고 부정적 정서 경험을 적게하는 것이다. 자기실현적 관점에서 행복은 타인과 구별되는 자신의 진정한 본성을 깨닫고 발휘하는 것으로 개인적 성장과 발달, 도전과 노력과 관련된다(Heo, 2009).

쾌락주의적 관점에서 행복을 설명하는 고전적인 방식이 욕구충족 이론(desire fulfilment theory)이다(Diener, 1984 as cited in lee, 2019). “욕구충족 이론에서 욕구란 그 자체로 행복 혹은 불행을 이르게 하지는 않지만, 욕구의 충족 여부가 행복과 불행을 결정한다(Kim & Han, 2006; Maslow, 1970; Shin & Johnson, 1978; Shon, 2013 as cited in Lee, 2019, p. 10). 주관적 안녕으로서 행복은 결핍감이 해소되는 욕구충족 과정에서 경험하는 긍정적인 정서와 인지적 평가의 복합적 산물이다(Lee, 2019). Diener(1984)는 개인의 행복은 자신이 자신의 삶을 어떻게 느끼는가 하는 주관적 판단이 중요하며 ‘인지적 평가’인 삶의 만족도와 ‘정서적 평가’인 긍정적 정서와 부정적 정서의 세 요소로 구성된다고 보았다(Heo, 2009). 심리적 안녕감(psychological well-being)은 자기실현적 관점에 기초한 것으로 심리적 안정감은 사회속에서 개인이 얼마나 잘 기능하는가가 개인의 삶의 질을 높여 준다고 보고, 바람직한 삶의 요소를 자아수용성, 긍정적 대인관계, 자율성, 환경통제력, 삶의 목적, 개인의 성장의 6개로

정리하였다.

행복을 정의하는 관점은 연구에 따라 다르다. 행복의 사전적(위키 낱말사전) 의미는 ‘삶에서 기쁨과 즐거움을 그리고 만족을 느끼는 것’이다. 또는 행복은 희망을 그리는 상태에서의 좋은 감정으로 심리적인 상태 및 이성적 경지 또는 자신이 원하는 욕구와 욕망이 충족되어 만족하거나 즐거움과 여유로움을 느끼는 상태, 불안감을 느끼지 않고 안심해 하는 것을 의미한다. Heo(2009)는 행복을 주관적 및 심리적 안녕감 관점을 모두 포함하여 ‘자신의 욕구를 추구해 가면서 인지적으로 만족하며 긍정 정서를 많이 느끼고 부정 정서를 적게 느끼는 상태’라고 정의하였다. Lee(2019)는 행복감을 ‘(아동·청소년이) 일상생활에서 주관적으로 지각하는 긍정적인 정서 상태’로 정의하였다.

청소년의 행복과 관련하여 연구한 결과를 살펴보면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을 크게 개인요인, 가정요인, 학교요인, 지역사회 요인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청소년의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요인은 자아존중감(Kang & Lee, 2022; Lee, 2018; Seong & Yoon, 2010), 자아탄력성(Kim, 2010), 우울(Le, 2018), 주관적 건강상태(Kang et al., 2022; Kim, 2015), 성별(Cho, 2016; Lee, 2016), 연령(Han et al., 2012), 학교성적(Jun & Choi, 2017; Kim et al., 2015; Lee, 2016) 등이 있다. 자아존중감과 주관적 건강상태, 우울의 청소년 행복에 대한 영향력은 일관된 결과를 보인다.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자아탄력성이 높을수록, 우울이 낮을수록, 주관적 건강상태를 긍정적으로 인식할수록 행복은 높아지는 것으로 보고된다. Han et al.(2012)에 의하면 청소년의 행복은 연령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변수이다. 청소년의 연령이 높아질수록 행복은 낮아지는데, 즉, 고등학생보다는 중학생, 중학생보다는 초등학생의 행복이 높게 나타난다. 그러나 성별과 학교성적은 연구에 따라 상반된 결과가 보고된다. 성별에 따라 청소년의 행복이 차이가 있다는 연구(Cho, 2016; Lee, 2016)와 성별에 따른 행복의 차이가 없다는 연구도 있다(Jo, 2014). 학교성적과 관련해서도 학업성취가 높을수록 행복이 높다는 연구와(Kim et al., 2015; Lee, 2016), 성취수준이 높을수록 행복이 낮다는 연구가 있다(Jun et al., 2017).

청소년의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가정요인은 가구소득(Hong, 2020; Lee, 2016; Lee, 2018), 부모양육태도(Le, 2020), 부모자녀관계(Heo, 2007) 등이 있다. 가정의 경제수준이 높을수록, 부모의 양육태도가 민주적일수록, 부모자녀관계가 긍정적일수록 청소년의 행복은 높았다.

청소년의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학교요인은 학교생활 만족도(Chang, 2022; Lee & Choi, 2014), 교우관계(Jeon & Yoo, 2015; Kwon & Yun, 2020), 교사관계(Heo, 2009), 학교적응(Le, 2018), 심리사회적 학교환경(Suh et al., 2014), 학교유대감(Suh et al., 2014), 특별활동(Suh et al., 2014), 교사지지(Heo, 2009), 또래지지(Heo, 2009), 학습활동 즐거움(Heo, 2009) 등이 있다. 학교생활 만족도가 높을수록, 교우관계, 교사관계가 긍정적일수록 청소년의 행복은 높았다.

또한, 학교에서 적응을 잘하고 즐거움과 유대감을 가지고 생활할수록 청소년 행복은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청소년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변인이 탐색되었다. 개인요인, 가정요인, 학교요인, 지역사회 요인의 청소년 행복에 대한 개별 변인의 영향력을 살펴본 연구도 있고, 여러 요인의 영향력을 동시에 탐색한 연구도 있다. 더 나아가 위계적 회귀분석을 통하여 청소년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의 상대적 크기를 비교하는 연구도 있다(Suh et al., 2014; Lee, 2018). Suh et al.(2014)은 개인능력, 가족환경, 학교환경의 세 요인으로 구분하여 통제변수의 영향력을 통제한 후 청소년 행복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았다. 통제변수는 성별, 연령, 가구 소득수준, 가구유형이었고, 개인능력 요인은 학업성적, 사회성, 진로성숙도였고, 가족환경 요인은 가족갈등 대처방법, 부모의 교육참여 및 지도감독, 부모의 학대 또는 방임이었고, 학교환경 요인은 심리사회적 학교환경, 학교 유대감, 특별활동 등이었다. 이 연구는 통제변인 투입(Model 1) 후, 학교환경(Model 2) 요인, 가족환경(Model 3) 요인, 개인능력 요인(Model 4) 순으로 위계적 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Lee(2018)는 통제변수로 성별, 연령, 건강상태, 가구소득을, 개인요인으로 우울과 자아존중감을, 환경요인으로 부모양육태도, 학교적응, 지역사회인식을 활용하였다. Lee(2018)는 통제변수 투입(Model 1), 개인요인(Model 2), 환경요인(Model 3) 순으로 위계적 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Suh et al.(2014)의 결과는 학교환경 요인($R^2=.230$)이 청소년 행복을 가장 크게 설명하였고, 개인능력($R^2=.055$), 가족환경($R^2=.056$) 순으로 나타났다. Lee(2018)의 결과는 개인요인($R^2=.317$)이 환경요인($R^2=.038$)보다 청소년 행복을 더 많이 설명하였다.

가정요인과 학교요인을 정확하게 구분하여 청소년 행복에 대한 영향력을 살펴본 연구는 개별적 변인의 연구와 다양한 변인의 영향력을 동시에 살펴본 연구에 비해 제한적이다. 또한, Lee(2018)의 연구는 환경요인에 가정요인과 학교요인을 동시에 투입하였고, Suh et al.(2014)은 개인요인을 개인의 특성(자아존중감, 자아탄력 성 등) 보다는 개인의 능력(학업성적, 사회성, 진로성숙도)으로 설정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각 요인의 정확한 영향력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가정요인과 학교요인을 구분하여 모델을 구성하였고, 개인요인에 개인의 특성과 능력을 모두 투입하였다. Lee(2018)의 위계적 회귀분석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개인요인, 가정요인, 학교요인 순으로 모델에 투입하였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의 행복과 개인요인, 가정요인, 학교요인 변인 간 관계는 어떠한가? 둘째, 개인요인, 가정요인, 학교요인에서 어떤 변인이 청소년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가? 셋째, 개인요인, 가정요인, 학교요인은 청소년 행복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청소년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요인, 가정요인, 학교요인을 탐색하고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주관한 2019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중·고등학생용) 응답자료를 활용하였다. 2019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 참여한 중학생은 총 2,865명, 고등학생은 총 3,544명이었으나 모든 변인의 결측치를 제외한 중학생 2,054명, 고등학생 2,706명만 본 연구를 위한 분석에 포함하였다. <표 1>에 분석에 포함된 학생들에 대한 정보가 나타나 있다.

<표 1> 연구 참여자 특성

		중학생		고등학생	
		n	%	n	%
성별	남학생	1,021	49.7	1,364	50.4
	여학생	1,033	50.3	1,342	49.6
학년	1학년	589	28.7	778	28.7
	2학년	690	33.6	923	34.1
	3학년	775	33.7	1,005	37.1
지역	특별/광역시	880	42.9	1,116	41.3
	중소도시	957	46.6	1,226	45.3
	읍지역	169	8.2	234	8.6
	면지역	47	2.3	129	4.8
합계		2,054	100.0	2,706	100.0

2. 측정도구

본 연구는 2019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중·고등학생용) 응답자료를 활용하였다. 종속변인은 행복이었고, 독립변인은 개인요인, 가정요인, 학교요인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개인요인은 성별, 자기개념, 수면시간, 고민 나눌 수 있는 사람 유무, 학교성적, 삶의만족도, 건강에 대한 인식이었다. 가정요인은 부학력, 모학력, 경제수준이었고, 학교요인은 학교생활에 대한 인식, 학교생활만족도였다. 모든 변인 중 자기개념과 학교생활에 대한 인식만이 4단계 Likert 척도로 측정되었다. 자기개념은 6문항, 학교생활에 대한 인식은 3문항으로 측정되었고, 수치가 높을수록 변인의 정도가 긍정적으로 높음을 의미한다. 자기개념 Cronbach α 는 중학교, 고등학교 순으로 .83, .82였다. 학교생활에 대한 인식 Cronbach α 는 중학교, 고등학교 순으로 .71, .67이었다.

행복은 4단계 1문항으로, 수면시간은 서술형 문항으로, 고민 나눌 수 있는 사람 유무는 이분 문항으로, 학교성적은 5단계의 1문항, 삶의 만족도는 11단계의 1문항, 건강에 대한 인식은 4단계 1문항으로, 학교생활만족도는 4단계 1문항으로 측정되었다. 부와 모의 학력은 8단계, 경제수준은 7단계로 구분하여 측정되었고, 수치가 높을수록 변인의 정도가 긍정적으로 높았다.

3.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21.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Cronbach α 계수, 기술통계, Pearson 적률상관관계 분석, 위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위계적 다중회귀분석은 행복을 종속변인으로 하여 개인요인, 가정요인, 학교요인 변인들을 단계적으로 투입하여 분석하였다. 회귀분석 시 통계적 유의성과 표준화 계수 크기, 설명량 변화, 다중공선성 등을 살펴보았다.

Ⅲ. 연구결과 및 해석

1. 기술통계

행복, 수면시간, 건강에 대한 인식, 학교성적, 자아개념, 삶의 만족도, 경제수준, 학교생활 인식, 학교만족 변인의 기술통계가 학교급별로 <표 2>, <표 3>에 나타나 있다. 어려운 일이 있을 경우 도움 사람 유무 변인과 부모학력 변인은 각각 <표 4>, <표 5>에 나타나 있다.

다음 <표 2>, <표 3>에 나타난 변인들의 왜도와 첨도는 절대값 2이하로 정규분포를 충족하고 있다. <표 2>, <표 3>의 변인 중 1점이 최소값, 4점이 최대값인 변인은(행복, 건강에 대한 인식, 자아개념, 학교생활 인식, 학교만족) 3점 수준을 보인다. <표 2>, <표 3>의 대부분 변인은 중학생이 고등학생 변인의 수치보다 다소 높아 보인다. 행복 평균은 중학생이 3.12, 고등학생이 2.97이었고, 건강에 대한 인식은 중학생이 3.16, 고등학생이 3.05, 자아개념은 중학생이 3.05, 고등학생이 2.94, 삶의 만족도도 중학생이 6.87, 고등학생이 6.47이었다. 이 외 수면시간 평균, 경제수준, 학교생활 인식, 학교만족도도 중학생의 평균이 다소 높았다.

어려운 일이 있을 경우 도움 사람 유무 비율은 중학교, 고등학교 모두 ‘있음’의 비율이 ‘없음’에 비해 매우 높아(중학교 89.5%, 고등학교 90.7%) 대부분의 학생은 어려운 일이 있을 경우 도움이 있었다. 부모학력은 대학교 졸업, 고등학교 졸업 순으로 비율이 높아 대부분의 부모는 고등학교 이상의 학력 수준을 보였다.

<표 2> 중학교 연구 변인의 기술통계

(N=2,054)

	<i>n</i>	최소값	최대값	<i>M</i>	<i>SD</i>	왜도	첨도
행복	2,054	1.00	4.00	3.12	.68	-.42	.14
수면시간	2,054	3.00	11.50	7.33	1.16	-.42	.27
건강에 대한 인식	2,054	1.00	4.00	3.16	.65	-.42	.31
학교성적	2,054	1.00	5.00	3.23	1.00	-.11	-.34
자아개념	2,054	1.00	4.00	3.05	.68	-.39	-.62
삶의 만족도	2,054	1.00	10.00	6.87	2.27	-.55	-.41
경제수준	2,054	1.00	7.00	4.83	1.03	.03	.11
학교생활 인식	2,054	1.00	4.00	3.18	.55	-.34	.28
학교생활 만족	2,054	1.00	4.00	3.02	.66	-.59	1.09

<표 3> 고등학교 연구 변인의 기술통계

(N=2,076)

	<i>n</i>	최소값	최대값	<i>M</i>	<i>SD</i>	왜도	첨도
행복	2,706	1.00	4.00	2.97	.67	-.32	.22
수면시간	2,706	3.00	10.00	6.00	1.14	.24	.02
건강에 대한 인식	2,706	1.00	4.00	3.05	.66	-.29	.11
학교성적	2,706	1.00	5.00	2.94	1.02	.16	-.29
자아개념	2,706	1.00	4.00	2.94	.66	-.23	-.56
삶의 만족도	2,706	1.00	10.00	6.47	2.20	-.39	-.53
경제수준	2,706	1.00	7.00	4.49	1.02	.05	.45
학교생활 인식	2,706	1.00	4.00	3.12	.53	-.16	.14
학교생활 만족	2,706	1.00	4.00	2.92	.64	-.57	1.11

<표 4> 중학교, 고등학교 어려운 일이 있을 경우 도움 사람 유무

(중학교 N=2,054, 고등학교 N=2,076)

		중학교		고등학교	
		<i>n</i>	%	빈도	<i>N</i>
도움사람	없음	215	10.5	251	9.3
	있음	1838	89.5	2455	90.7
전체		2054	100.0	2706	100.0

<표 5> 중학교, 고등학교 부모학력

(중학교 N=2,054, 고등학교 N=2,076)

	중학교				고등학교			
	아버지		어머니		아버지		어머니	
	n	%	n	%	n	%	n	%
학교 안다님	1	.0	1	.1	1	.0	1	.0
초등학교 졸업	7	.3	5	.3	16	.6	16	.6
중학교 졸업	25	1.2	22	1.1	50	1.9	41	1.5
고등학교 졸업	485	23.6	547	26.6	937	34.6	1,125	41.6
대학교 졸업	1,275	62.1	1,307	63.6	1,423	52.6	1,389	51.3
대학원 졸업	261	12.7	171	8.3	279	10.3	135	5.0
전체	2,054	100.0	2,054	100.0	2,706	100.0	2,706	100.0

2. 상관관계

변인들 간 상관관계가 다음 <표 6>에 나타나 있다.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는 중학교 수면 시간과 학교성적의 관계, 고등학교 수면시간과 학교성적, 수면시간과 경제수준, 수면시간과 학교생활 관계를 제외하고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했다. 중학교에서 행복과 상관관계가 가장 높은 변인은 삶의 만족도(.713)였다. 자아개념(.590), 학교생활 인식(.485), 학교생활 만족(.476)도 행복과 상관관계가 높았다. 행복은 수면시간(.192), 학교성적(.141), 경제수준(.227)과는 통계적으로는 유의미했지만 다소 낮은 상관관계를 보인다. 삶의 만족도는 자아개념(.654), 학교생활 인식(.497), 학교생활 만족(.440)과도 상관관계가 높았다. 반면, 삶의 만족도는 수면시간(.224), 학교성적(.216), 경제수준(.209)과는 상관관계가 다소 낮았다. 고등학교도 중학교와 비슷한 양상을 보인다. 고등학교에서도 행복과 상관관계가 가장 높은 변인은 삶의 만족도(.706)였다. 자아개념(.535), 학교생활 인식(.426), 학교생활 만족(.460)도 행복과 상관관계가 높았다. 행복은 수면시간(.125), 학교성적(.142), 경제수준(.197)과는 통계적으로는 유의미했지만 다소 낮은 상관관계를 보인다. 삶의 만족도는 자아개념(.535), 학교생활 인식(.428), 학교생활 만족(.460)과도 상관관계가 높았다. 반면, 삶의 만족도는 수면시간(.107), 학교성적(.235), 경제수준(.286)과는 앞선 변인에 비해 상관관계가 다소 낮았다.

〈표 6〉 중학교, 고등학교 연구 변인 간 상관분석

	행복	수면 시간	건강에 대한 인식	학교 성적	자아 개념	삶의 만족도	경제 수준	학교 생활	학교 만족
행복		.125**	.344**	.142**	.535**	.706**	.197**	.428**	.460**
수면 시간	.192**		.089**	-.021	.101**	.107**	-.027	.023	.062**
건강에 대한 인식	.352**	.135**		.114**	.381**	.367**	.164**	.301**	.277**
학교 성적	.141**	.017	.129**		.223**	.235**	.219**	.189**	.144**
자아 개념	.590**	.220**	.390**	.212**		.618**	.199**	.433**	.390**
삶의 만족도	.713**	.224**	.380**	.216**	.654**		.286**	.471**	.463**
경제 수준	.227**	.062**	.178**	.236**	.209**	.287**		.149**	.131**
학교 생활	.476**	.076**	.375**	.219**	.497**	.504**	.175**		.623**
학교 만족	.485**	.116**	.328**	.153**	.440**	.497**	.160**	.660**	

** $p < .01$ 비고: 대각선 기준 왼쪽 아래=중학교($N=2,054$), 대각선 기준 오른쪽 위=고등학교($N=2,706$), 학교생활
=학교생활 인식, 학교만족=학교생활 만족

3. 위계적 다중회귀분석 결과

청소년의 행복에 개인요인, 가정요인, 학교요인이 미치는 영향을 탐색하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1단계 모델은 개인요인 성별, 자아개념, 수면시간, 고민을 나눌 사람 유무, 학교성적, 삶의 만족도, 건강에 대한 인식을 독립변인으로 투입하였고, 2단계는 가정요인으로 부학력, 모학력, 경제수준을 추가하였고, 3단계는 학교요인인 학교생활에 대한 인식과 학교생활 만족도를 추가 투입하였다. 분석결과가 <표 7>, <표 8>에 나타나 있다. 모든 학년 모형에서 공차(tolerance)와 분산팽창지수(variance inflation factor)는 .1이상, 10미만으로 나타나 다중공선성 문제는 없었다.

중학생을 대상의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1단계 모델에서 건강에 대한 인식($\beta=.06$, $p < .01$), 학교성적($\beta=-.03$, $p < .01$), 자아개념($\beta=.21$, $p < .01$), 삶의 만족도($\beta=.56$, $p < .01$)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건강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일수록, 자아개념이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을수록 중학생의 행복도 높아졌다. 그러나, 학업성적은 중학생의 행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자아개념과 삶의 만족도는 표준화계수가 높아 행복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다. 특히 삶의 만족도($\beta=.56$) 다른 변인들에 비해 행복에 미치는 영향력의 정도가 매우 컸다. 성별, 수면시간, 주변에 도울사람 유무 변인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가정요인을 추가한 2단계 모델에서는 부학력($\beta=-.06, p<.01$)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부학력은 중학생의 행복에 부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이는 아버지 학력이 높을수록 중학생 자녀의 행복은 낮아짐을 의미한다. 모학력($\beta=.02, p>.05$)과 경제수준($\beta=.03, p>.05$)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학교요인을 추가한 3단계 모델에서는 학교생활에 대한 인식($\beta=.06, p<.01$)과 학교생활 만족($\beta=.11, p<.01$)도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학교생활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일수록, 학교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중학생의 행복은 높아졌다.

개인요인만을 투입한 1단계 모델은 $adjR^2=.538$ 이었다. 2단계 모델의 설명량은 $adjR^2=.540$, 3단계 모델의 설명량은 $adjR^2=.555$ 였다. 2단계에서 추가된 설명량은 $adjR^2$ 변화량=.002였고, 3단계에서 추가된 설명량은 $adjR^2$ 변화량=.015였다. 추가된 설명량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나, 3단계에서 추가된 설명량이 2단계에서 추가된 것보다 컸다. 이는 부학력, 모학력, 경제수준보다 학교생활에 대한 인식과 만족도가 중학생의 행복을 더 많이 설명하는 것을 의미한다.

고등학생 대상의 연구 결과는 중학생의 연구 결과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인과 관련하여 차이를 보인다. 1단계 모델에서 중학생의 경우는 성별, 수면시간, 주변에 도울 사람 유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나, 고등학생의 경우 성별만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수면시간($\beta=.04, p<.01$), 건강에 대한 인식($\beta=.07, p<.01$), 학교성적($\beta=-.03, p<.05$), 주변에 도울 사람 유무($\beta=.05, p<.01$), 자아개념($\beta=.14, p<.01$), 삶의 만족도($\beta=.59, p<.01$)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수면시간이 많을수록, 건강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일수록, 자아개념이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을수록 고등학생의 행복도 높아졌다. 중학생과 마찬가지로 학업성적은 고등학생의 행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자아개념과 삶의 만족도는 표준화계수가 높아 고등학생의 행복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삶의 만족도($\beta=.56$) 다른 변인들에 비해 행복에 미치는 영향력의 정도가 매우 컸다.

가정요인을 추가한 2단계 모델에서도 고등학생 결과는 중학생의 결과와 차이가 있다. 중학생은 부학력($\beta=-.06, p<.01$)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나, 고등학생은 부학력($\beta=-.02, p>.05$), 모학력($\beta=-.02, p>.05$), 경제수준($\beta=.00, p>.05$)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학교요인을 추가한 3단계 모델에서도 중학생과 다르게 학교생활 만족($\beta=.13, p<.01$) 변인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학교생활에 대한 인식($\beta=.06, p<.01$)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학교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고등학생의 행복은 높아졌다.

고등학생의 경우 개인요인만을 투입한 1단계 모델은 $adjR^2=.523$ 이었다. 2단계 모델의 설명량은 $adjR^2=.523$, 3단계 모델의 설명량은 $adjR^2=.539$ 였다. 2단계에서 추가된 설명량은 $adjR^2$ 변화량은 .000이었고, 3단계에서 추가된 설명량 $adjR^2$ 변화량은 .016이었다. 추가된 설명량은 3단

계에서 추가된 설명량만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이는 부학력, 모학력, 경제수준보다 학교생활 만족도가 고등학생의 행복을 더 많이 설명하는 것을 의미한다.

<표 7> 중학생 행복에 대한 위계적 다중회귀분석 결과

	1단계			2단계			3단계		
	B	β	t	B	β	t	B	β	t
(상수)	1.13		12.32**	1.27		9.89**	1.06		8.16**
성별	.04	.03	1.79	.04	.03	2.05*	.02	.02	1.09
수면시간	.01	.02	1.2	.01	.01	.84	.01	.01	.95
건강에 대한 인식	.06	.06	3.66**	.06	.06	3.52**	.04	.03	2.08*
학교성적	-.02	-.03	-1.97*	-.02	-.03	-1.95	-.03	-.04	-2.51*
주변에 도움 사람 유무	-.03	-.01	-.8	-.03	-.01	-.81	-.05	-.02	-1.61
자아개념	.21	.21	10.12**	.21	.21	10.15**	.17	.18	8.40**
삶의 만족도	.17	.56	27.33**	.17	.56	26.83**	.15	.51	23.75**
부학력				-.06	-.06	-3.08**	-.06	-.06	-3.25**
모학력				.02	.02	.95	.02	.02	.85
경제수준				.02	.03	1.92	.02	.03	1.94
학교생활 인식							.07	.06	2.61**
학교생활 만족							.12	.11	5.63**
adj R ²		.538			.54			.555	
adj R ² 변화량		.538**			.002**			.015**	

* $p < .05$, ** $p < .01$, B=비표준화계수, β =표준화계수

<표 8> 고등학생 행복에 대한 위계적 다중회귀분석 결과

	1단계			2단계			3단계		
	B	β	t	B	β	t	B	β	t
(상수)	.96		12.89**	1.12		10.77	.86		7.97**
성별	.03	.02	1.72	.03	.02	1.6	.03	.02	1.63
수면시간	.03	.04	3.10**	.02	.04	2.87**	.02	.04	2.94**
건강에 대한 인식	.07	.07	4.82**	.07	.07	4.78**	.06	.05	3.73**
학교성적	-.02	-.03	-2.41*	-.02	-.03	-2.07*	-.02	-.04	-2.50*
주변에 도움 사람 유무	.11	.05	3.28**	.1	.04	3.20**	.08	.03	2.41*
자아개념	.15	.14	8.10**	.15	.15	8.18**	.13	.12	6.93**
삶의 만족도	.18	.59	33.59**	.18	.59	33.10**	.16	.54	29.41**
부학력				-.02	-.02	-1.01	-.02	-.02	-1.06
모학력				-.02	-.02	-1.15	-.02	-.02	-1.29
경제수준				.00	.00	.17	.00	.00	.4
학교생활 평균							.04	.03	1.56
학교만족							.14	.13	7.56**
$adjR^2$.523			.523			.539	
$adjR^2$ 변화량		.523**			.000			.016**	

* $p < .05$, ** $p < .01$

B=비표준화계수, β =표준화계수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청소년의 행복에 개인요인(성별, 자아개념, 수면시간, 고민을 나눌 사람 유무, 학교성적, 삶의 만족도, 건강에 대한 인식), 가정요인(부학력, 모학력, 경제수준), 학교요인(학교생활에 대한 인식과 학교생활 만족도)이 미치는 영향을 탐색하기 위해 기술통계, 상관분석, 위계적 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위계적 회귀분석에서 1단계 모델은 개인요인을 독립변인으로 투입하였고, 2단계는 가정요인을 추가하였고, 3단계는 학교요인을 추가 투입하였다. 분석에 활용된 자료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주관한 2019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중·고등학생용) 응답자료 중 결측치를 제외한 중학생 2,054명, 고등학생 2,706명만 연구를

위한 분석에 포함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아래와 같다.

첫째, 행복은 중학생과 고등학생 자료에서 모든 변인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중학생의 경우 행복은 삶의 만족도, 자아개념, 학교생활 만족도, 학교생활에 대한 인식, 건강에 대한 인식, 경제수준, 수면시간, 학교성적 순으로 상관관계가 높았다. 고등학생의 경우 행복은 삶의 만족도, 자아개념, 학교생활 만족도, 학교생활에 대한 인식, 건강에 대한 인식, 경제수준, 학교성적, 수면시간 순으로 상관관계가 높았다. 중학생과 고등학생 모두에서 삶의 만족도, 자아개념, 학교생활 만족도, 학교생활에 대한 인식은 행복과 높은 상관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Lee(2018), Suh et al.(2014) 등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청소년의 자아개념이 높을수록, 교사나 교우와 관계 원만하고 학교를 즐거워할수록 청소년의 행복은 높다. 교사관계, 교우관계 등의 대인관계는 청소년의 행복에 중요한 요인이라는 연구결과(Heo, 2009; Jeon et al., 2015; Keon et al., 2020)와도 일치한다. 나아가 청소년기 자아개념은 대인관계 형성에 영향을 크게 미치므로(Kim, 2019; Kim, 2021), 청소년이 더욱 긍정적인 자아개념을 개발할 수 있도록 가정과 학교는 다양한 노력을 해야 한다.

둘째, 중학생의 경우 1단계 개인요인 중 건강에 대한 인식, 학교성적, 자아개념, 삶의 만족도가, 2단계 가정요인 중 부학력이, 3단계 학교요인에서는 학교생활에 대한 인식과 학교생활 만족도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고등학생의 경우는 1단계 개인요인 중 수면시간, 건강에 대한 인식, 학교성적, 주변에 도움 사람 유무, 자아개념, 삶의 만족도가, 2단계 가정요인에서는 어떤 변인도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고, 3단계 학교요인에서는 학교생활 만족도만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수면시간, 건강에 대한 인식, 주변에 도움 사람 유무, 자아개념, 삶의 만족도, 학교생활에 대한 인식, 학교생활 만족도는 행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나, 부학력과 학교성적은 행복에 부적인 영향을 미쳤다. 성별과 관련한 결과는 성별에 따른 행복의 차이가 없다는 연구(Jo, 2014)와 일치한다. 자아개념, 건강에 대한 인식의 긍정적 영향력도 선행연구와 일치한다. 경제수준이 유의한 영향이 없는 결과는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행복이 높다는 선행연구(Heo, 2009; Lee, 2018)와 상반되는 결과이다. 학교성적의 청소년 행복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은 성취수준이 높을수록 행복이 낮다는 Heo(2009), Jun et al.(2017)과 일치하지만, 학업성취가 높을수록 행복이 높다는 연구(Kim et al., 2015; Lee, 2016)와는 상반되는 결과이다. 이렇게 학업성적, 성별, 가정의 경제수준 등은 청소년 행복에 대한 영향력이 연구에 따라 상이하나, 학교관련 변인의 긍정적 영향력은 기존의 연구와 일치한다. 학교요인은 학교적응을 학교요인으로 살펴본 Lee(2018), 심리사회적 학교환경, 학교유대감, 특별활동을 학교변인으로 살펴본 Suh et al.(2014)의 연구결과와 비슷하여 청소년의 학교생활의 중요성을 시사한다. 학교는 청소년이 안정적으로 즐겁게 생활할 수 있도록 환경, 분위기, 풍토 등을 조성해야 한다.

고등학생은 중학생에 비해 1단계 개인요인 중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인으로 수면시간과 주변에 도울 사람 유무가 추가되었다. 그러나 2단계와 3단계에서 중학생 결과에서 유의미했던 부학력과 학교생활에 대한 인식은 유의미하지 않았다. 학교생활에 대한 인식은 3문항으로 ‘학교 친구들은 나를 존중하고 배려해 준다’, ‘선생님은 학생들을 존중한다’, ‘나는 학교에 가는 것이 즐겁다’ 였다. 고등학생은 입시나 취업을 준비하는 기간으로 중학생에 비해 수면시간이 필연적으로 줄어드는데(중학생 수면시간 평균=7.33, 고등학생 수면시간 평균=6.00), 이렇게 충분한 수면시간이 부족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수면시간은 상대적으로 중학생 시기에 비해 주요한 요인이 되어 고등학생의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학교생활에 대한 인식은 중학생 시기에는 행복에 영향을 미쳤으나 고등학생 시기에는 유의한 변인이 아니었는데, 고등학생 시기는 교우관계, 사제관계, 학교에서의 즐거움 외에 진로와 학업, 상담 등 여러 요인들이 학교에 대한 인식에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에 따르면 1단계 개인요인의 행복에 대한 설명량이 가장 컸다. 또한, 중학교, 고등학교 결과에서 모두 2단계 가정요인에 의해 추가된 설명량보다는 3단계 학교요인의 추가된 설명량의 크기가 더 컸다. 이는 부모의 학력과 경제수준 보다는 학교생활에 대한 인식과 학교생활 만족 정도가 학생의 행복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보여준다. 학교요인이 가정요인에 비해 청소년 행복에 미치는 영향력이 더 크게 나타나는 결과는 Suh et al.(2014) 결과와 비슷한 양상을 보인다. Suh et al.(2014)은 1단계에서 통제변수를, 2단계에서 학교환경 변인을, 3단계에서 가족환경 변인을, 4단계에서 개인능력 변인을 투입하였다. 학교환경 변인을 투입했을 때 추가된 설명량은 .230, 가정요인을 투입했을 때 추가된 설명량은 .055였다. Suh et al.(2014)은 본 연구와 다른 순서로 요인들을 추가했지만, 학교요인이 가정요인에 비해 영향력이 큰 본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부분이다.

학교 관련 다양한 변인들이 청소년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탐색되었다. 학교적응, 심리사회적 학교환경, 학교유대감, 특별활동, 교사관계, 교우관계, 교사지지, 또래지지, 학습활동 즐거움, 학교생활 만족도 등 이러한 학교관련 변인들은 청소년 행복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된다. 또한, 학교는 역기능적인 가정에서 발생하는 폭력, 학대 등을 경험하는 학생들은 자신감과 규율을 제공하는 교과 과정, 롤 모델이 되고 학생을 지지해 주는 교사를 통해 회복탄력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Suh et al., 2014). 학교는 청소년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므로, 학교 교육과 관련된 상위 교육기관은 교육정책을 입안하고 실행할 때 이의 중요성을 인식해야 한다. 학교행정가와 교사들도 학교환경이 학생들에게 긍정적인 생활환경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본 연구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행복에 대한 부모의 학력과 경제수준의 영향력은 학교생활에 대한 인식과 만족도 보다 크지 않았는데, 이와 관련하여 추후

연구를 진행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부모의 학력과 경제수준은 청소년의 행복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는 연구도 있다. 본 연구에서 확인하지 못한 부모의 학력과 경제수준이 청소년의 행복에 미치는 영향력은 직접효과 대신에 매개효과나 조절효과 등 간접효과로 나타날 수 있어 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응답 자료의 한계로 가정요인을 부모학력과 경제수준으로 제한할 수밖에 없었지만, 가정요인과 관련 있는 다양한 변인의 영향력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행복, 삶의 만족도, 건강에 대한 인식, 학교생활 만족도는 측정 문항이 1문항으로 신뢰도가 낮았던 점도 추후 고려될 필요가 있다. 낮은 신뢰도 문제를 보완할 수 있는 분석 방법을 고려하여 탐색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위계적 회귀분석 방법은 변인의 투입 순서에 따라 설명량 결과가 달라진다. 청소년 행복에 대한 위계적 회귀분석을 수행할 경우, 변인 투입 순서에 대한 이론적, 학문적 근거가 필요하다.

References

- Ahn, D. H. (2012). A study on happiness of adolescents in Korea and China. *Korean Journal of Educational Research*, 50(1), 227-255. ☞ 국문: 안도희(2012). 한·중 청소년의 행복에 관한 연구. *교육학 연구*, 50(1), 227-255.
- Cho, H. I. (2016). The level of happiness and depression during childhood. *The Journal of Child Education*, 25(1), 277-292. <http://dx.doi.org/10.17643/KJCE.2016.25.1.16>. ☞ 국문: 조한익(2016). 우리나라 아동들의 행복과 우울수준. *아동교육*, 25(1), 277-292.
- Diener, E. (1984). Subjective well-being. *Psychological Bulletin*, 95(3), 542-575. https://doi.org/10.1007/978-90-481-2350-6_2
- Han, M., Choi, I. C., Kim, B. J., Lee, H. J., Kim, K. M., & Ryu, S. G. (2012). Happiness of Korean adolescence: Age-based comparison.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19(5), 217-235. ☞ 국문: 한민, 최인철, 김범준, 이훈진, 김경미, 류승아(2012). 한국 청소년들의 행복: 타 연령대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청소년학연구*, 19(5), 217-235.
- Heo, B. H. (2007). *The effects of parents' child-rearing attitudes perceived by high school students on self-esteem and sociality* [Unpublished Master's Thesis]. Yeungnam University. ☞ 국문: 허병행(2007). **고등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가 자아존중감과 사회성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영남대학교.
- Heo, S. Y. (2009). *An analysis of ecological variables affecting adolescent happines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Sookmyung Women's University. ☞ 국문: 허승연(2009). **청소년의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생태체계 변인**. 박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 Hong, S. H. (2020). Data analysis report on establishment and utilization of youth big data system 2: A study on structured big data on determinants of youth happiness (20-R08-2).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 국문: 홍성효(2020). **청소년 빅데이터 체계 구축 및 활용방안 연구 데이터 분석 보고서 2: 청소년 행복 결정요인에 대한 정형 빅데이터 연구 (20-R08-2)**.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Chang, H. S. (2022). The change trajectory of happiness of high school students using the growth-mixed model and predictive effect by point in time.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29(2), 287-315. <https://doi.org/10.21509/KJYS.2022.02.29.2.287> ☞ 국문: 장희선(2022). 성장혼합모형을 활용한 행복 변화궤적과 시점별 예측효과 검증. *청소년학연구*, 29(2), 287-315.
- Jeon, H. J., & Yoo, M. S. (2015). The path analysis of self-esteem, career maturity and

- microsystem affecting adolescents' subjective happiness.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22(6), 75-104. ☞ 국문: 전해진, 유미숙(2015). 청소년의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자아존중감, 진로성숙도 및 미시체계 변인의 경로분석. **청소년학연구**, 22(6), 75-104.
- Jo, E. J. (2014). The effects of perceived social support on happiness of the children and young people: Focused on children and young people from low-income families. *Forum for Youth Culture*, 37(0), 103-127. <http://doi.org/10.17854/ffyc.2014.01.37.103> ☞ 국문: 조은정(2014). 아동 청소년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가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저소득층 아동·청소년을 중심으로. **청소년문화포럼**, 37(0), 103-127.
- Jun, Y. S., & Choi, Y. S. (2017). Study on the influence of children's GPA on the happiness of parents and themselves.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24(2), 473-490. <http://doi.org/10.21509/KJYS.2017.02.24.2.473> ☞ 국문: 전영상, 최영신(2017). 학업성적이 부모와 자신의 행복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24(2), 473-490.
- Kamerman, S. B., Phipps, S., & Ben-Arieh, A. (2010). *From child welfare to child well-being: An international perspective on knowledge in the service of policy making*. Springer.
- Kang, M. S., & Lee, S. H. (2022). A study on the developmental trajectory of adolescents' happiness. *The Journal of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21, 13(4), 1-13. <http://doi.org/10.22143/HSS21.13.4.1> ☞ 국문: 강민식, 이선화(2022). 청소년의 행복감 발달궤적에 관한 연구. **인문사회**21, 13(4), 1-13.
- Kim, H. N., Kim, J. S., & Roh, S. H. (2015). Factors influencing subjective happiness among Korean adolescent: Analysis of 2014 Korean youth risk behavior survey. *Journal of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6(11), 7657-7666. <http://doi.org/10.5762/KAIS.2015.16.11.7656> ☞ 국문: 김한나, 김정선, 노승현(2015). 청소년의 주관적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2014년 제10차 청소년건강행태 온라인 조사 자료 분석.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16(11), 7657-7666.
- Kim, M. S., & Han, Y. S. (2006). The development of happiness index for Korean. *Survey Research*, 7(2), 1-38. ☞ 국문: 김명소, 한영석(2006). 한국인의 행복 지수 공식 개발. **조사연구**, 7(2), 1-38.
- Kim, S. Y. (2019). The effect of parenting behaviors and peer relationships on early adolescents' self-concept. *Global Creative Leader: Education & Learning*, 9(2), 39-56. <https://doi.org/10.34226/gcl.2019.9.2.39> ☞ 국문: 김소영(2019). 초기 청소년의 부모관계와 또래관계가 자아개념 형성에 미치는 영향. **Global Creative Leader: Education & Learning**, 9(2), 39-56.
- Kim, S. Y. (2021). The effect of individual characteristics on the interpersonal relationship competency of adolescents. *Global Creative Leader: Education & Learning*, 11(3),

- 31-51. <https://doi.org/10.34226/gcl.2021.11.3.31> ㉮ 국문: 김소영(2021). 청소년 개인특성이 대인관계역량에 미치는 영향. *Global Creative Leader: Education & Learning*, 11(3), 31-51.
- Kim, T. H. (2015). A study on the effect of family affluence on happiness: The analysis of the mediating effect of self-rated health. *Journal of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6(3), 1692-1698. ㉮ 국문: 김태형(2015). 가구풍요도가 청소년의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주관적 건강의 매개효과 분석.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16(3), 1692-1698.
- Kim, Y. H. (2010). The relation of daily stress and ego-resilience to the happiness of children and adolescents.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17(12), 287-307. ㉮ 국문: 김연화(2010). 아동청소년의 일상 스트레스 및 자아탄력성과 행복감과의 관계. *청소년학연구*, 17(12), 287-307.
- Kwon, Y. J., & Yun, H. J. (2020). An analysis of the structural relationships among adolescents' happiness related variables: A comparison between ordinary and delinquent groups. *Studies on Korean Youth*, 31(1), 183-210. <http://doi.org/10.14816/sky.2020.31.1.183> ㉮ 국문: 권용준, 윤현정(2020). 청소년의 행복감과 관련 변인들의 구조적 관계 분석: 비행경험 여부에 따른 집단 간 비교. *한국청소년연구*, 31(1), 183-210.
- Lee, H. J. (2016). Determinants of subjective well-being among Korean youth: Focusing on socio-demographic and social capital factors. *Studies on Life and Culture*, 39(0), 151-186. ㉮ 국문: 이홍직(2016). 중고생의 주관적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인구사회학적 요인, 사회자본 요인을 중심으로. *생명연구*, 39(0), 151-186.
- Lee, J. H., & Choi, Y. C. (2014). Analysing the relationships among the factors affecting happiness of adolescents: Focusing on OECD countries. *Korean Comparative Government Review*, 18(2), 67-84. <http://doi.org/10.18397/kcgr.2014.18.2.67> ㉮ 국문: 이지혜, 최영출(2014). 청소년의 행복도에 영향을 미치는 교육적 요인 분석: OECD 국가를 중심으로. *한국비교정보학보*, 18(2), 67-84.
- Lee, M. Y. (2020). Effects of parenting style on feeling of well-being of adolescents: Mediator effects of self-esteem. *Forum for Youth Culture*, 64(0), 115-135. <http://doi.org/10.17854/ffyc.2020.10.64.115> ㉮ 국문: 이미영(2020). 부모의 양육태도가 청소년의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청소년문화포럼*, 64(0), 115-135.
- Lee, S. J. (2019). *Daily life and happiness of adolescents: Comparison of adolescents in poverty and not in poverty*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Ewha Womans

- University. ㉮ 국문: 이수진(2019). **청소년의 일상생활과 행복: 빈곤과 비빈곤 청소년의 비교**. 박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 Lee, Y. J. (2018). The influence of personal factors and environmental factors on adolescent's happiness. *The Journal of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21, 9(5), 1023-1035. <http://doi.org/10.22143/HSS21.9.5.73> ㉮ 국문: 이윤정(2018). 개인요인과 환경요인이 청소년의 행복에 미치는 영향. **인문사회**21, 9(5), 1023-1035.
- Maslow, A. (1970). *Motivation and personality*. Harper & Row.
- Seong, B. H., & Yoon, S. A. (2010). Definition of happiness and its determinants. *Journal of Brain Education*, 6(0), 103-134. ㉮ 국문: 성보훈, 윤선아(2010). 행복의 정의와 발달단계별 결정요인. **뇌교육연구**, 6(0), 103-134.
- Shin, D. C., & Johnson, D. M. (1978). Avowed happiness as an overall assessment of the quality of life. *Social Indicators Research*, 5(0), 475-492. <https://doi.org/10.1007/BF00352944>
- Shin, J. E., Choi, H. W., Suh, E. K., & Koo, J. S. (2013). Do happy teenagers become good citizens? positive affect builds prosocial perspectives and behaviors. *Korean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ity Psychology*, 27(3), 1-21. <http://doi.org/10.21193/kjspp.2013.27.3.001> ㉮ 국문: 신지은, 최혜원, 서은국, 구재선(2013). 행복한 청소년은 좋은 시민이 되는가? 긍정 정서와 친사회적 가치관 및 행동.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7(3), 1-21.
- Shon, J. H. (2013). A study on happiness of theatre production crews. *Review of Culture Economy*, 16(2), 3-24. ㉮ 국문: 손지현(2013). 연극 종사자의 행복 수준과 결정 요인에 관한 연구. **문화경제연구**, 16(2), 3-24.
- Suh, J. W., & Jung, Y. T. (2014). Comparison of influences of variables on subjective happiness in the youth: Personal capability, family environment and school environment.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21(8), 265-292. ㉮ 국문: 서재욱, 정윤태(2014). 개인능력, 가족환경, 학교환경 변인이 청소년의 주관적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력 비교. **청소년학연구**, 21(8), 265-292.
- Yeom, Y. S., & Seong, G. H. (2021). *Happiness Index for Children and Adolescents in Korea: A Report on the Results of an International Comparative Study*. Institute for Social Development Studies Yonsei University. ㉮ 국문: 염유식, 성기호(2021). **한국 어린이·청소년 행복지수: 국제비교연구 조사결과 보고서**. 연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